

# 성녀의 삶 통한 신앙 재정비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성녀 드렉셀 성지 순례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그리스도 모후 꾸리아에서 주최한 성녀 드렉셀 성지 순례에 참가한 45명의 신자와 김순진 주임 신부, 주교좌성당의 강 수녀가 함께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제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야고 5,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10월 1일, 성녀 캐트린 메리 드렉셀(Katharine Marie Drexel) 시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는 지난 6일 그리스도 모후 꾸리아(단장 김광남 줄리안나)의 주최로 필라델피아 교구 주교좌 성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에 유해가 모셔진 성녀 드렉셀 성지 순례에 45명이 참석했다.

김순진 신부는 성당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이며 미사 성제가 봉헌되는 성찬의 식탁인 제대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상징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교와 성직자들의 책무와 역할, 158년 된 주교좌 성당 안의 건축양식과 2천명이 넘는 신자가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경

도 덧붙였다.

강 메리 루치아 수녀(주교좌성당)는 성녀 드렉셀의 희생적인 삶을 재조명하며 1955년 3월 3일, 97세로 선종할 때까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성녀의 일생을 순례자들과 함께 뒤돌아 보았다.

필라델피아 대 부호의 딸로 태어나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인디언과 흑인들의 권익과 교육,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던 성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복된 성사의 수도회(Sisters of the Blessed Sacrament)’를 설립했고 60여 개의 학교를 세웠다. 인종차별로 멸시 받고 고통 당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성녀의 헌신적인 삶과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신자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에 대해 순례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양경숙 명예기자